

타운미팅 방식의 워크샵 프로그램 안내

“타운미팅 방식의 워크샵을 통해 주제나 이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만족도와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기존 워크샵 (Workshop)의 문제점

- 주제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자(스폰서)가 참여하여 토론을 주도하므로, 팀원들이 허심탄회하고 열린 토론을 하기 어렵다
- 해당 부서나 팀과 연관된 문제나 이슈만 다룰 수 있다
- 단순히 토론에만 그치거나, 심층적인 것보다는 일반적인 해결방안만 수립 가능
- 스폰서가 의사결정이나 실행 책임 여부를 일방적으로 코멘트하거나 지시
- 일정한 진행 프로세스가 없어, 팀원들이 전체적인 일정이나 단계를 알지 못한다
- 객관적 입장의 퍼실리테이터가 없어, 갈등관리나 원활한 의사결정이 안된다
- 정해진 템플릿이 없어, 워크샵 결과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 워크샵을 마치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지 않아, 팀원들의 오히려 약하다
- 비즈니스와 연관된 이슈나 과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친목이나 단합에 치중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에 누군가가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고, 스스로 결정 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강요나 논증에 의한 설득에 저항한다”

“스토리텔링은 말하는 사람의 관점이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머리 속에 전달시켜, 상대방의 마음에서 성찰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도록 만든다”

“스토리텔링은 강요 (Push)가 아닌, 상대방 스스로 다가오게 (Pull) 만든다”

타운미팅 (Town Meeting) 방식의 워크샵의 이점

- 주제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자(스폰서)는 참여하지 않으므로, 팀원들이 허심탄회하고 열린 토론을 할 수 있다
- 해당 부서나 팀은 물론, 조직 전체와 연관된 문제나 이슈도 다양하게 다룬다
- 열린 토론으로 심층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방안 수립이 가능
- 스폰서에 의해 의사 결정된 실행안의 책임자도 자체적으로 결정하므로 참여도가 높다
- 일정한 진행 프로세스가 있어, 팀원들이 전체적인 일정이나 단계를 정확히 안다
- 객관적 입장의 퍼실리테이터가 있어, 갈등관리나 원활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 정해진 템플릿이 있어, 워크샵 결과의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하다
- 워크샵을 마치면서 분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팀원들의 옴니십이 높아진다
- 비즈니스와 연관된 전략적이고 중대한 이슈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에 누군가가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고, 스스로 결정 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강요나 논증에 의한 설득에 저항한다”

“스토리텔링은 말하는 사람의 관점이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머리 속에 전달시켜, 상대방의 마음에서 성찰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도록 만든다”

“스토리텔링은 강요(Push)가 아닌, 상대방 스스로 다가오게(Pull) 만든다”

타운미팅 방식의 워크샵 운영 방법

- 워크샵을 진행하는 시간에 맞추어, 진행하는 방법만 타운미팅 방식을 도입
- 타운미팅 방식을 접목하여 최대한의 워크샵 효과를 내려면 최소 15시간 정도 필요
- 팀당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최대 3~4팀까지 운영
- 팀별 주제는 동일 주제로 하거나, 서로 다른 주제로 운영 가능
- 만약 4팀이 모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퍼실리테이터 1명 추가 투입 필요

- 본 방식은 식스시그마에서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팀미팅에도 적용 가능

타운미팅 방식의 워크숍 시간표

시 간	15시간
1	• 타운미팅 진행 방법 소개
2	• 팀별 리더와 서기 선출 • 주제 구체화
3	• 문제점 파악 및 핵심문제 선정
4	
5	
6	• 원인 분석 및 핵심원인 선정
7	
8	
9	• 해결방안 도출 및 선정
10	
11	
12	• 실행 계획 수립
13	
14	• 팀별 프레젠테이션 및 의사결정
15	

* 본 시간표는 기본 과정이고, 고객에 따라 시간과 내용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